

‘곳간 텅텅’ 지자체 임금도 못줄판

광주·전남, 27곳중 16곳 재정기반 취약

취득세 인하 전국 지자체 수입 12조 줄어

광주·전남 27개 시·군·구 가운데 5분의3에 해당하는 16곳이 자체 수입으로는 직원 인건비도 못 졸 정도로 재정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4곳에서 2곳이 추가됐다. 전국적으로는 38곳에서 78곳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14일 안전행정부가 발간한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를 보면 7개 시, 61개 군, 10개 자치구는 올해 예산에서 자체 수입 규모가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등 소속 직원의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남지역에서는 담양·곡성·구례·

고흥·보성·장흥·강진·해남·무안·함평·영광·장성·완도·진도·신안이, 광주에서는 동구가 해당됐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담양·무안·진도가 포함되고, 광주의 남구가 제외됐다.

특히 전남에서 5곳을 제외한 17곳의 군 가운데 15곳(88.24%)이 이에 해당돼 전남지역 군의 재정 상황이 악화일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적으로도 군 지역의 경우 전체 83곳 중 70%가 넘는 61곳이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를 줄 향편이 못 되는 것으로 나타나 취약한 자치재정 여건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는 자치단체

의 자체 수입을 가리키는 ‘자체 세입’이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지자체의 자체 세입은 지난해 보다 12조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자체 세입 급감은 우선 ‘자체 세입 범위 축소’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자체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월금과 전입금 등이 올해부터 세외수입 항목에서 빠지면서 자체 세입이 급감한 듯한 착시효과가 생겼다는 것이다.

만약 종전대로 이월금과 전입금 등을 세외수입에 포함하면 올해 자치단체의 자체 세입 실제 감소분은 12조 원이 아니라 3조2000억원으로 줄어든다.

부동산 거래세 인하 등에 따른 세수 감소도 자치체 세입여건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

자체수입 감소, 국고보조금 등 이

전재원 증가, 세입과목 개편 등으로 인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1.1%에서 올해 44.8%로,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했다. 또 재정자립도에 교부세나 재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등을 더한 재정자주도 역시 지난해 76.6%에서 69.2%로 급락했다.

한편, 올해 기금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는 지난해 166조2000억원에서 3.1% 늘어난 171조4000억원으로 파악됐으며, 사회복지비중이 지난해(35조원)보다 14.6% 증가한 40조1000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안행부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세수가 자치체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지난해 8월 시행된 취득세 인하가 완전히 반영됨에 따라 자체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담배 유해성 밝히겠습니다”

담배소송 대리인을 맡고 있는 안선영 국민건강보험공단 변호사(오른쪽)와 정미화 법무법인 남산 대표변호사가 14일 오전 서울 미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의실에서 소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 (주)KT&G·필립모리스코리아(주)·BAT코리아(주)를 상대로 약 540억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식 제기했다.

/연합뉴스

호남고속철 중국산 저가 부품 감사

감사원 5월부터

황찬현 감사원장은 14일 호남고속철도에 중국산 저가 전력선이 사용된 것과 관련, “5월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 원장은 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현안보고에서 새정 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국토부 자체감사는 별도로 감사원이 사전예방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하자 이같이 대답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이명박 정권 당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환경 재

양을 불러 온 4대강 사업에 대해 수 없이 감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감사원은 대통령이 바뀐 뒤에야 감사에 나서 뒤늦게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냈다”며 “이것은 감사원이 ‘흔을 판 뒷북 감사’를 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상반기에 계획돼 있다고 하지만 올 말에 호남고속철 공사는 끝난다”며 “4대강 사업 감사처럼 하지 말고 사전예방 감사를 통해 공사 중단 조치를 취하거나 문제 가 된 부품을 전부 교체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건보공단, 담배사 3곳에 537억 피해소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14일 (주)KT&G·필립모리스코리아(주)·BAT코리아(주) 등 국내외 3개 담배제조사를 상대로 약 540억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식 제기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날 “소송 대리인(법무법인)이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며 “소송액은 537억원으로, 소송 과정에서 가액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소송 규모는 흡연과의 인과성이 큰 3개암(폐암·종양·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후두암·종편평세포암) 환자들 가운데 20년이상 하루 한갑씩 흡연했고, 흡연기간이 30년을 넘는 사례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2003~2012년 사이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이다.

건강보험공단과 소송 대리인은 피해액 추산을 위해 이를 환자의 일반 검진자료·국양환자 등록자료(국립암센터)·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특정인구집단) 자료 등을 연계, 분석했다. 당초 건강보험공단측은 최대 2300억원대의 소송액을 거론하기도 했지만, 승소 가능성이·소송 비용 등을 고려해 자문 위원과 사내외 변호사 등과 협의해는 소송에서 소송 규모를 낮췄다.

이번 소송의 외부 대리인은 지난 달 2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공모를 거쳐 법무법인 남산(대표변호사 정미화)이 선임됐다. 남산은 지금까지 흡연자 30명이 담배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배상 소송에서도 대리인을 맡았지만, 이 개인 소송은 모두 밝혔다.

은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정미화 변호사는 앞으로 공단 내부 안선영·임현정·전성주 변호사와 함께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 담배 소송을 본격 진행하게 된다.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은 작 수금으로 1억3700만원을 먼저 받고, 승소를 40% 이상 경우 성공보수로 2억75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를 포함, 소송 관련 비용은 모두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마련된다.

안선영 건강보험공단 사내 변호사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결과, 국내외 전문가 자문, 세계보건기구(WHO)와의 협력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구체적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 교통카드 전국서 쓴다

7월부터 호환

사업자)카드와 상호 정산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마이비(부산, 충북, 경남지역), 한국스마트카드(서울, 대전, 포항, 제주지역)와도 교통카드 전국호환을 위한 정산 협약을 체결하기로 합해졌다.

박 의원은 이날 “이명박 정권 당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환경 재

양을 불러 온 4대강 사업에 대해 수 없이 감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감사원은 대통령이 바뀐 뒤에야 감사에 나서 뒤늦게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냈다”며 “이것은 감사원이 ‘흔을 판 뒷북 감사’를 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상반기에 계획돼 있다고 하지만 올 말에 호남고속철 공사는 끝난다”며 “4대강 사업 감사처럼 하지 말고 사전예방 감사를 통해 공사 중단 조치를 취하거나 문제 가 된 부품을 전부 교체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같은 소송 규모는 흡연과의 인과성이 큰 3개암(폐암·종양·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후두암·종편평세포암) 환자들 가운데 20년이상 하루 한갑씩 흡연했고, 흡연기간이 30년을 넘는 사례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2003~2012년 사이 진료비로

서 쓰는 생물정보 연결지도(connectivity map)를 이용, 토마티딘이 시험관에서 배양된 인간근육세포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는 휴식에서에서도 확인됐다.

설익은 녹색 토마토는 적당량 먹으면 안전하지만 쥐에 투여된 토마티딘(tomatidine)이라는 성분이 근육의 성장을 촉진하고 근육 악화를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애덤스 박사는 시스템 생물학에

/연합뉴스

초록 토마토에 근육 강화 성분

초록 토마토에 근육을 강화하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아이오와 대학 의과대학 내과전문의 크리스토퍼 애덤스 박사는 초록 토마토에 들어있는 토마티딘(tomatidine)이라는 성분이 근육의 성장을 촉진하고 근육 악화를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애덤스 박사는 시스템 생물학에

서 쓰는 생물정보 연결지도(connectivity map)를 이용, 토마티딘이 시험관에서 배양된 인간근육세포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는 휴식에서에서도 확인됐다.

설익은 녹색 토마토는 적당량 먹으면 안전하지만 쥐에 투여된 토마티딘(tomatidine)이라는 성분이 근육의 성장을 촉진하고 근육 악화를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애덤스 박사는 시스템 생물학에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3126-총-52297호

老안시려 노안교정

밝은광주안과 의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노안라식 / Kamra Inlay를 이용한 시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토렌즈



사람+금융=광주새마을금고

37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서민금융을 지켜온 광주새마을금고

정기예탁금 특별판매

1년 3.2%

돈이 모이는 비과세 금융상품
세금없는 비과세 최고 7,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예·적금 3,000만원, 생계형 3,000만원)
광주새마을금고에 오시면 꿈과 미래가 보장됩니다.

MG 광주새마을금고
(구 양동시장 복개상가 새마을금고)
(구 광주유통 새마을금고)

대표 전화 본점: 361-3515 양동지점: 362-6164
각화지점: 268-6163 풍암금호지점: 651-6167
광주 광역시 서구 천변로 246번길 3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한메디카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글리코엔(N)
골드

식후 혈당상승 억제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ucose를

조절합니다

KHSA

식후 혈당상승 억제!!

01 식후 혈당상승 억제제에 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을 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0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3 (주)유한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원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DAW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설탕 1899-3975 H.P 010-3598-7080